

보도시점 2025. 12. 14.(일)
회의 시작 (13:30) 이후

배포 2025. 12. 12.(금)

한·중·일 3국 간 정신건강 등 보건정책 공조와 협력방안 논의

- 서울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
- 디지털·AI 기반 건강보장, 건강한 노화 및 정신건강 관련 공동성명문 채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이틀간 콘래드 서울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핵심 협력국인 한·중·일 3국 간 공통의 보건 문제를 확인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3국 합의로 순환 개최되는 올해 회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장으로 주최하였으며, 일본은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Ueno Kenichiro) 장관, 중국은 레이 하이차오(Lei Hai Chao)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을 대신하여 펑 용(Feng Yong)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하였다. 또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 u Piukala) 사무처장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이희섭 사무총장도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함께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3국이 쌓아온 보건 협력의 연속성과 신뢰에 감사를 표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견인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라는 공통 과제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AI·디지털 헬스와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제

논의를 통해 앞으로도 3국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3국 수석대표들은 △AI·디지털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UHC),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3국은 AI 및 디지털 기술이 보편적 의료보장의 혁신적인 수단이 됨을 확인하고, 필수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지역 등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3국의 인프라 및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3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과 돌봄·건강 서비스 등 각국의 정책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기반 개인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신건강을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과제임에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식별, 적시 개입체계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한,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진단 기술 등 디지털 활용도 넓혀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3국 수석대표들은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3국간 보건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3국 대표단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사무총장은 12월 13일(토)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의 선도적인 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AI) 활용 현장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세브란스 병원 AI혁신연구원의 AI 활용 생체신호 모니터링 및 활용 사례 등을 경청하고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기반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 및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갖고 동아시아 3국 협력을 넘어 다자간·지역간 보건의료 국제협력의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과 면담을 통해 올해 APEC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내년도 중국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상호협력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본과는 지난 8월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저출생·고령화, 자살예방정책 등 한·일 공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있는 자살 예방 정책 이행을 위한 양국 간 후속실무회의를 제안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와는 한-WPRO 제2차 국가협력전략(CCS*) 서명식을 갖고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헬스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양측의 실천과제를 담았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우수한 보건 기술·정책 사례 공유 및 전문인력의 WHO 진출을 지원하고, WPRO는 정책 대화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의 성과를 회원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26-2030): ▲디지털헬스, ▲건강한 사회 조성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전략적 협력 강화의 5대 분야로 구성

정은경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이 직면한 보편적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AI·디지털 전환, 고령화, 정신건강이라는 공통의 난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3국을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요

2. 공동성명문

담당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심은혜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이영우 (044-202-2363)

□ **회의 개요**

- 한·중·일 보건의료 주요 이슈 논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협의체로서, 매년 3국 순환개최,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개최
 - (일시·장소) '25.12.13.(토) ~ 12.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 (참석자) 한·중·일 3국 수석대표, WPRO(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 TCS(한중일 협력사무소) 사무총장 등 총 40명 내외
 - (주요 의제) 디지털 기반 보편적 의료보장, 건강한 노화 및 정신건강
 - (주요 일정) 현장 방문, 공식 만찬 및 보건장관회의

일정		주요 내용
양자 면담		- 한·일, 한·중, 한·WPRO / 일·중, 일·WPRO / 중·WPRO
현장 방문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공식 만찬		- 3국 수석대표 및 WPRO, TCS 사무총장 등 공식 만찬
보건장관회의	인사말씀 (개회사)	- 3국 수석대표 및 WPRO 사무처장, TCS 사무총장
	토론	- 각 국별 3가지 주요의제에 대해 발언
	공동성명문	- 토론 의제를 바탕으로 공동성명문 채택

[영문 원본]

**Joint Statement of
The 18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Among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14 December 2025**

W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held the 18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14, 2025.

Since its inception in 2007 in response to cooperation on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the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has continued to strengthen collabo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e areas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nd regional health 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hree countries worked in close cooperation and solidarity to overcome the health emergencies. Building upon this experience, the three Ministers adopted in 2024 a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R), which reinforced practical cooperation through information sharing, joint research, and expert exchanges. The Ministers also renewed the Joint Action Plan to enhance future preparedness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We further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trilateral collaboration in strengthening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and expressed our continued support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cluding the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 which plays an essential role in global health governance during health emergencies including pandemics.

Through the course of overcoming the pandemic, we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and resilient health systems. Beyo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urther cooperation on

broader health agendas, includ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healthy and active ageing, and mental health promotion.

AI and Digital Health for UHC

We acknowledged that, amid complex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population ageing, the rising burden of chronic diseases, and shortages of the health workfor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technologies serve as transformative enablers for achieving UHC.

The three countries will expand equity and accessibility of health services by utilizing various digital technologies—including telemedicine, mobile health, and AI-based diagnostic support systems—to overcome geographical and socio-economic barriers.

Priority will be given to strengthening digital health systems for rural and underserved areas. The three countries will share experiences on context-appropriat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within their respective health infrastructure and regulatory frameworks, and will promote integrated digital strategies to reinforce primary health car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as cornerstones for UHC.

Promoting Healthy and Active Ageing

We recognized that population ageing is a long-shared structural challenge and reaffirmed our common priority of enabling people of all generations to lead healthy and productive lives.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olicies that ensure adequate health and long-term care services throughout the life course and shared a common view to strengthen integrated care systems that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 To this end, we will advance community-based services and person-centred care, and share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on relevan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We reaffirmed that health promotion and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are key pillars for healthy ageing, and consented to expand preventive approaches such as healthy diets, physical activity, and early screening. Cooperation will be strengthened to implement the regional action framework for non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Western Pacific, while continuing joint efforts to train and empower the health and care workforce. The three

countries also intend to harness AI and digital technologies to improve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delivery.

Promoting Mental Health and Wellbeing

We recognized mental health as a critical public health priority that significantly affect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stainability. We consented to enhance cooperation in addressing anxiety, depression,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rising from rapid socio-economic change, urbanization, and digitalization.

We are committed to prioritizing life-course approaches to suicide prevention, including early identification of high-risk groups and timely intervention mechanisms. We will also promote the responsible use of digital tools—such as online counselling platforms, mobile applications, and AI-based risk prediction and diagnostic technologies—to strengthen suicide prevention capacities.

The three countries will continue to share policies and innovative practices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and are determined to generate tangible synergies for mental health promotion and suicide prevention across East Asia through evidence-based policy cooperation.

We further consented to enhance collaboration with WHO including WPRO to improve public health, reduce health inequalities, and promote community wellbeing in the region.

The 19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will be hel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6.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2025년 12월 14일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일본국의 후생노동성은 2025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3국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협력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감염병 공동 대응과 보건 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3국은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보건위기를 극복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24년에는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에 관한 협력 각서를 채택하여, 정보 공유·공동 연구·전문가 교류 등 실질적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갱신하였다.

팬데믹 극복의 과정에서 3국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감염병 대응을 넘어 보편적 건강보장(UHC),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폭넓은 보건 의제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는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삼국 협력의 중요성 또한 재확인했고, 팬데믹 등을 포함한 보건 위기시 국제보건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WHO 서태평양지역기구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밝혔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AI·디지털 헬스

3국은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 보건의료 인력 부족 등 복합적 구조적 도전 앞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UHC 달성의 혁신적 수단이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원격의료, 모바일 헬스, AI 기반 진단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지리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디지털 헬스 시스템 강화에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각국의 보건 인프라 및 제도적 맥락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을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 기반으로서 일차보건의료(PHC)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디지털 통합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촉진

우리는 오랜 기간동안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핵심 우선 순위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3국은 전 생애적 관점에서 적절한 보건 및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돌봄의 강화를 추진하고, 각국의 정책 및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3국은 건강증진 및 만성 질환(NCDs) 예방·관리가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 요소들임을 재확인하며, 건강 식단, 신체활동 증진, 조기 검진 등 예방 중심의 접근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 비감염성질환 NCD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역행동체계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돌봄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제고할 것이다.

정신건강(Mental Health) 증진

3국은 정신건강이 국민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과제를 인식하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시화, 디지털화로 인한 불안, 우울,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개입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또한 온라인 상담, 모바일 앱, AI 기반 예측 및 진단 기술 등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여 자살 예방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3국은 정신건강 분야 정책과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근거 기반 정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실질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3국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WPRO를 포함한 WHO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1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26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다.